

韓國神話에서 본 世界構造*

玄容駿**

目 次

- I. 序 言
- II. 垂直的 雙分構造
- III. 水平的 雙分構造
- IV. 複合的 三分構造
- V. 結 論

I. 序 言

古代 우리 민족은 이 세계의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天地, 日月, 山海 등 自然事象으로부터 男女, 善惡 등 인문사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을 어떠한 범주로 분류하고, 그것들이 어떤 상관관계로 구성되었다고 인식했었는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하나의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구명은 우리

* 이 논문은 1974년, 제17회 전국 국어국문학 연구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임.

**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科 教授

민족의 思惟方式과 문화의 특성을 밝히는 일의 하나가 됨과 동시에 민족 문화의 원류를 구명하는 기초작업도 된다.

민족의 世界觀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그 민족의 모든 문화유산이겠지만 그 중의 하나에 손쉬운 것으로 神話를 들 수 있다. 神話는 민족의 古代的 世界觀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 설화이므로 그것을 통하여 민족의 世界觀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의 口傳說話와 文獻說話의 몇 개 예를 분석함으로써 거기에 담긴 世界構造觀을 탐색해 보려 한다.

II. 垂直的 雙分構造

韓國 神話에 나타난 世界構造는 세 개의 기본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垂直的 雙分構造, 水平的 雙分構造, 複合的 三分構造가 그것이다.

垂直的 雙分觀은 개벽신화에 선명하다. 그 대표적인 것은 제주도의 敘事巫歌 〈천지왕본풀이〉이다. 이것은 제주도의 큰 굿의 첫머리 〈초감제〉 때에 심방이 노래하는 說話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太初, 混合되어 있던 天地가 子方으로 하늘이 열리고, 丑方으로 땅이 열리고, 寅方으로 사람이 생겨나, 天地는 開闢했다. 그 모습은 시루떡의 〈징〉처럼 天地間에 금이 나서 天地가 分離되는 것이었다. 이 때, 하늘의 천지왕이 地上의 〈총맹부인〉에게 내려와 同寢하고 돌아갔는데, 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 兄弟를 낳았다. 成長한 兄弟가 후에 아버지를 찾아 가니, 兄에게는 이승을, 아우에게는 저승을 차지하라고 했다. 그러나, 욕심 센 아우는 이승을 차지하고자 해서 兄에게 수수께끼, 꽃 가꾸기 등 경쟁을 하여 이기는 자가 이승을 차지하자고 제안했다. 아우는 속임수로 경쟁에 이겨 이승을 차지하고, 兄은 양보해 저승을 차지하여 가면서 이승은 매우 혼란한 세계가 될 것이라 했다. 과연 이승은 해도 돌, 달도 돌이 뜨고, 草木 禽獸가 말을 하고, 인간의 不和, 도둑, 간음이 盛行하고 귀신과 人間의 分別이 없어 大混亂이었다. 할 수 없이 아우는 兄에게 간청하여 複數의 日月, 草木 禽獸의

韓國神話에서 본 世界構造

言語, 神人の 無分別 등을 整理하여 秩序를 세워 주었으나, 자갈한 社會秩序는 바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社會惡은 如前하다.”

이 유형의 신화는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부지방인 咸鏡南道에도, 중부지방인 경기도에도 전승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咸南엿 것은 孫晉泰가 〈創世歌〉라는 이름으로 채록하고, 任哲宰가 〈센굿〉으로 채록하여 놓았는데,¹⁾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주 옛날, 하늘이 子方으로 열리고, 땅이 丑方으로 열리고, 사람이 寅方으로 생겨서 개벽했다. 그 후, 석가님이 탄생하여 미륵의 세상을 빼앗으려 갖가지 경쟁을 하고, 속임수로 이겨 이 세상을 차지했다. 이 때, 이 세상엔 해도 들, 달도 들이 뜨고, 惡疾, 역적, 巫女들이 나와 혼란했다. 석가님은 서천국에 가서 부처님께 간청하니, 부처님이 해 하나, 달 하나를 떼어 주어 하나씩만 남겼다.

경기도의 것은 秋葉隆이 〈시루말〉이라는 무가로 채록해 놓았는데,²⁾ 그 요지는 이러하다.

아주 옛날, 天下宮堂七星이 地下宮에 내려와 梅花夫人과 동침하고 〈선문이〉 〈후문이〉 형제를 낳았다. 후에 성장하여 형은 大漢國을 차지하고, 아우는 小漢國을 차지했다. 이 때, 하늘엔 해도 들, 달도 들이 났으므로 鐵弓으로 하나씩을 쏘아 없앴다.

이상 3개 지역의 신화는 여기서 일일이 그 유사성을 검증하지 않아도 같은 유형의 신화임을 직감할 수 있다. 天地分離開闢, 複數 日月, 動植物의 言語

1) 北濟州郡 朝天面 朝天里 男巫 鄭周柄 唱, 筆者 採錄 要約.

2) 孫晉泰, 「朝鮮神歌遺篇」(郷土文化社, 1930), pp.1~13.

任哲宰, 「關北地方巫歌(追加)」(文化財管理局, 1966), pp.1~18.

3)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上卷(大阪屋號書店, 1937), pp.128~132.

등 질서의 혼란과 형제의 경쟁에 의한 世界分治, 世界秩序의 정리 등, 여러 모티브가 유사함을 곧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면 이 類話는 전국 분포인데,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가 가장 완벽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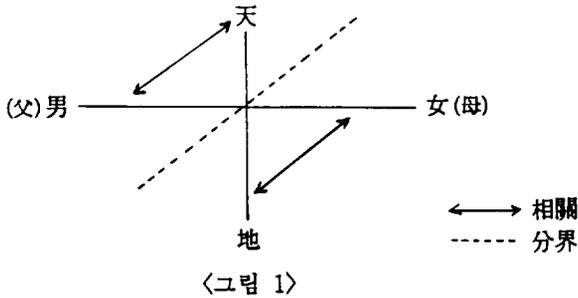
그러면 <천지왕본풀이>를 분석해 보자.

이 이야기는 두 개의 단락으로 끊어 볼 수 있다. 前段은 혼합된 천지가 시루떡의 <징>처럼 금이 나기 시작하여 천지가 분리됨으로써 개벽되었다는 이야기요, 後段은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이승과 저승을 分治함으로써 혼란했던 우주질서와 사회질서가 정리되어 오늘날처럼 되었다는 이야기다. 곧 前段은 宇宙空間의 형성 설명이요, 後段은 우주 및 인간 사회의 질서 형성 설명이다.

宇宙空間의 형성은 태초에 한 묶음으로 接合되었던 天地가 분리되어 오늘날과 같은 거리로 떨어짐으로써 이루어졌다는 發想이다. 이 발상은 <天>과 <地>라는 두 개의 분류 범주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질서 형성의 기초는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동침과 雙子 탄생으로 이루어졌다. 천지왕은 天界 出自의 남성이요, 총맹부인은 地界 出自의 여성인 바, 이 양자가 결혼을 한 것이다. 이것은 <男> <女>라는 두 개의 범주를 설정해 놓은 것임과 동시에, <天은 男>, <地는 女>라는 상관원리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 男·女는 그가 낳은 雙子(대별왕·소별왕) 측에 보면 父·母가 된다. 여기에서 <天은 父> <地는 母>라는 天父地母의 원리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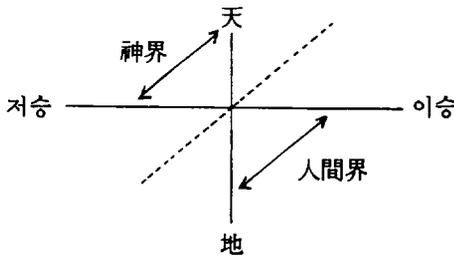
이 신화는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天>과 <地>, <男>과 <女>라는 二對四個의 범주를 설정하고, <天-男性-父>와 <地-女性-母>라는 雙分的 체계를 표출하고 있다. 아울러서 이 체계는 <天> <地>의 두 범주를 우주 공간 형성의 기초로, <男> <女>의 두 범주를 사회 질서 형성의 기초로 인식하고, 이 二對의 범주를 <그림 1>과 같이 縱, 橫線의 교차관계의 구조로 짜 놓고 있는 것이다.

韓國神話에서 본 世界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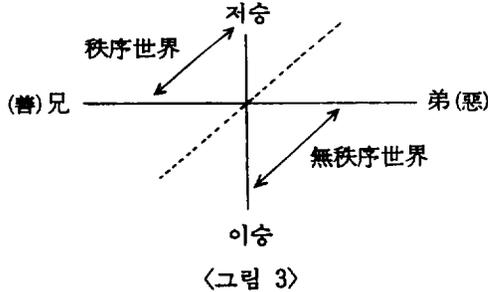


다음의 이야기는 대별왕·소별왕 형제가 이승과 저승을 分治함으로써 우주와 사회 질서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分治는 여러 가지 경쟁에서 아우가 속임수로 이겨서 이승을 차지하고, 형은 저승을 차지했다. 속임수로 이긴 아우는 〈惡〉이요, 양보하여 저승을 차지한 형은 〈善〉이다. 惡으로써 차지한 이승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결국 無秩序의 세계가 되고, 善한 형의 저승 세계는 질서의 세계가 된다.

이와 같은 설명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신화적 세계의 범주를 발견하게 된다. 〈저승〉과 〈이승〉이 그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天·地〉라는 可視的 우주 공간과 〈저승·이승〉이라는 신화적 세계 공간은 〈天=저승〉 〈地=이승〉의 대립관계이며, 〈저승=神界〉 〈이승=人間界〉의 관계로서 〈그림 2〉와 같은 짜임새인 것이다.



또한 이 신화는 저승·이승이라는 두 개의 신화적 세계범주에 〈兄〉〈弟〉, 〈善〉〈惡〉, 〈秩序〉〈無秩序〉 등의 對概念을 각각 맞추어 정립하고 있으니, 그 짜임관계는 〈그림 3〉과 같은 것이다.



이상 분석해 온 구조 체계를 종합해 보면 〈天〉〈地〉라는 기본 범주에 男·女, 父·母, 저승·이승, 兄·弟, 善·惡 등이 다음과 같이 雙分的 체계로 짜여져 있는 것이 된다.

天 - 저승 - 男 - 父 - 兄 - 善 - 秩序
 地 - 이승 - 女 - 母 - 弟 - 惡 - 無秩序

그런데, 〈天〉〈地〉라는 범주는 어디까지나 垂直的 개념이니, 여기서 垂直的 雙分的 世界構造의 논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체계는 유독 巫俗의 개벽신화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古典神話에서도 발견된다. 天界出自인 桓雄이 地上에 내려와 地界出自인 熊女와 혼인하여 檀君을 낳았다는 檀君神話를 비롯하여 五龍車를 타고 訖升骨城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 解慕漱神話, 하늘에서 내려온 新羅 六村의 始祖神話, 朴赫居世神話 등이 이러한 垂直的 雙分構造體系가 엿보이는 것들이다. 이러한 天孫降臨系神話는 北方쪽으로 이어져 올라가는 계통의 것임도 이미 알려진 일이다.

Ⅲ. 水平的 雙分構造

耽羅의 始祖神話인 三姓神話를 비롯한 제주도의 堂神話들은 세계의 구조를 水平的 雙分觀으로 인식하는 것이 많다.

먼저 「高麗史地理誌」에 기록된 三姓神話부터 적어 놓고 보자.

耽羅縣은 全羅道 남쪽 바다에 있다. 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 한라산의 북녘 기슭에 구멍이 있어 毛興穴이라 하니, 이 곳이 그것이다. 만이름 良乙那라 하고, 다음을 高乙那라 하고, 세계를 夫乙那라 했다. 세 神人은 황량한 들판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그 안에 돌함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 빛 옷을 입은 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돌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五穀의 씨가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日本國 使者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神子 세 사람이 탄생하시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고 하시며 臣에게 명하시어 세 따님을 모시도록 하므로 왔오니, 마땅히 배필을 삼아서 大業을 이루소서」 하고 使者는 훌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니, 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一都라 하고 高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二都라 했으며, 夫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第三都라 했다. 비로소 五穀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부해지더라.”

4) 原文：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窟出(今 嶺山北麓有穴曰 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避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人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이 신화를 분석함에 있어 注視하고 검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神人(남성)이 땅으로부터 솟아났다는 점. 그리고, 그 수가 3인이요, 수렵으로 皮衣肉食을 하여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점.

둘째, 동쪽의 日本國의 세 처녀가 표착해 와서 땅에서 솟아난 세 남성(神人)과 결혼했다는 점. 그리고, 세 처녀들은 오곡의 씨와 송아지·망아지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풍요한 생활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

세째, 결혼한 부부의 所居地가 一, 二, 三都로 三分되어 있고, 三乙那가 長·次·季로 서열화되었다는 점 등이다.

첫째의 男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모티브는 필자가 이미 논했듯이⁵⁾ 제주 도내의 堂神들의 출생과 동일한 것이다. 舊左面 松堂의 男神(소로소천국)은 알송당 고부니무루에서 솟아났고, 舊左面 細花本郷堂의 <친조또> 神은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났으며, 中文面 일대의 당신들은 한라산 서쪽 어깨 소뫼된 밧에서 乙丑 3월 대보름날에 솟아났다. 이처럼 제주도의 많은 堂의 男神들은 도내의 어느 지역이나 한라산에서 솟아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땅(地)>이라는 범주와 <山>이라는 개념을 같은 카데고리로 간주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동시에 <地(山)>과 <男性>을 상관관계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日本國의 세 처녀와 결혼했다는 점이다.

三姓神話도 異傳이 많으니, 세 처녀의 出自國은 크게 日本國과 碧浪國(東海碧浪國, 東海之碧浪國 등) 두 가지로 나타난다. 梁重海에 의하면 日本國 王女라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以來
宣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 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部 高乙那所居曰第二部 夫乙那所居曰第三部 始播五穀且牧
駒犢 日就富庶(下略)

5) 玄容駿, 「堂국의 儒式화와 三姓神話」, 「제주도」 14(제주도, 1964), pp.120~133.

기록한 문헌은 李元鎮 「耽羅志」, 「東國輿地勝覽」, 金斗奉 「耽羅誌」, 「朝鮮寰輿勝覽」 등이고, 碧浪國이라 기록된 문헌은 「耽羅紀年」, 「增補耽羅誌」, 「編禮抄」, 「萬姓大同譜」 등이라 한다.⁶⁾ 이 두 나라 중, 어느 것이 본래적인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필자는 이미 別稿에서 碧浪國이 본래적인 것이요, 日本國은 후대의 지리적인 비정이라 한 바 있다. 그리고, 碧浪國이란 원래 <바다나라> 곧 <海國>의 뜻을 가진 말을 漢字表記한 것으로서 동해의 아득히 먼 곳에 있다는 상상의 神人國이라는 견해를 말했었다.⁷⁾

이러한 필자의 견해가 맞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地(山)>와 對偶의인 범주로 <海>라는 것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바다 저쪽의 나라에서 여인이 왔다 했으니, 이 <海>라는 범주는 다시 <女>라는 범주와 상관관계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바다 저쪽의 나라는 東海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성인 三神人이 출생한 땅은 <西嶽>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地(山)-男-西>, <海-女-東>이라는 구조의 연관을 말해 준다. <地(山)·海>는 자연개념이요, <男·女>는 인문개념이며, <東·西>는 방위개념이다. 따라서, 이 구조는 <地(山)> <海>라는 對偶의 범주에 인문, 방위개념을 각각 雙分的 체계로 짜 놓은 것이 된다. 그리고, 동쪽의 王女가 오곡의 씨와 송아지·망아지 등 귀중품을 가지고 와서 수렵의 가난한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했으니, <男>은 가난, <女>는 풍요와 상관 개념이 된다. 이것을 종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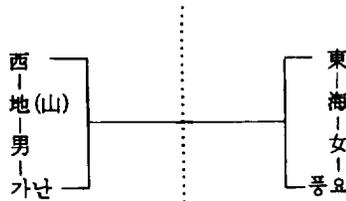
地(山)-男-西-가난
海 -女-東-풍요

이와 같은 雙分的 상징체계의 세계구조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 구조체계를 틀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4>와 같은 것이다.

6) 梁重海, 「삼성신화와 혼인지」, 「國文學報」 3(濟州大學, 1970), pp. 49~73.

7) 玄容駿, 1964. 위 논문.

玄容駿, 「古代韓國民族의 海洋世界」, 「文化人類學」 5(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pp. 49~73.



〈그림 4〉

이 체계에서는 수직적 개념인 〈天〉은 무의미해지고 수평적 개념인 〈地〉 〈海〉라는 범주가 기본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 水平的 雙分的 世界構造의 논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神人이 3인이요, 그 所居地가 一·二·三都로 三分되어 있고, 三乙那가 長·次·季로 3계층 서열화되어 있는 점이다.

이 모티브들은 사회 공간과 사회 질서의 인식 양태이다. 所居地의 三分은 사회 공간의 三分이요, 3人 湧出, 3계층의 서열화는 사회질서 구조의 三分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분적 서열화는 후대의 정치적 우열의 작용이 있는 것이겠지만, 〈3〉이라는 수의 원리가 事象마다 일관되어 있는 것은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三分의 체계의 구조라 볼 수 있는 것이다.

三姓神話를 종합하여 볼 때, 우주 공간 및 그 질서 형성의 인식과 사회 공간 및 그 질서 형성의 인식의 분류 범주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는 깨닫게 된다. 우주 구조는 〈地(山)－男－西－가난〉과 〈海－女－東－풍요〉의 雙分的 체계로 되어 있는데 대해 사회 공간 및 그 질서의 구조는 三分의 체계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雙分觀과 三分觀의 두 세계관이 병존하고 있는 셈이다. 본고는 세계구조관을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신화의 우주 공간 구조를 증시하여 水平的 雙分的 世界構造의 논리만을 우선 지적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水平的 雙分構造의 논리는 三姓神話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 堂神話의 주류는 제주도내의 어느 지점에서 솟아난 男神이 동해용왕국의 末女와 결혼하여 당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런 류의 당신화는 모두

三姓神話와 같은 세계구조의 논리이다.” 또한 古典神話인 脫解神話を 보면 倭의 東北 1천리에 있다는 龍城國의 王이 積女國의 王女와 결혼하여 큰 알을 낳고, 불길하다 하여 罍 속에 七寶와 함께 알을 담아 띄워 버리니, 新羅에 표착하여 알 속에서 탈해가 나와 후에 왕위에 올랐다 한다.” 이 이야기의 龍城國은 오늘날의 東海龍王國과 같은, 바다 저쪽의 상상의 나라요, 積女國 또한 女人國과 같은 상상의 나라이니, 바다 나라에서 육지로 귀중한 七寶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된다.”¹⁰⁾ 이렇게 이 이야기도 三姓神話와 같이 水平的 雙分觀의 세계구조를 표상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類話 곧 바다 저쪽의 나라에서 상자에 담겨 표착하는 모티브의 신화(箱舟漂着神話)는 三品影英에 의하면 한국 남부·渤海沿岸·對馬島·臺灣·支那海沿岸·필리핀·安南의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타는 배는 棺·木函·石函·배·함지박·獨木舟·뗏목 등이고, 표착하는 神人是 여성이 일반이며 臺灣쪽에서는 남녀가 많다고 한다.”¹¹⁾ 이렇게 볼 때, 水平的 雙分의 世界構造를 표상하는 신화는 남방으로 이어지는 계통의 것이라 생각된다.

IV. 複合的 三分構造

이제까지 垂直的 雙分의 世界構造를 표상하는 신화와 水平的 雙世의 世界構造를 표상하는 신화를 보아 왔는데, 이 兩系 신화가 복합되어 우주 공간 구조의 三分體系를 표출하는 듯이 보이는 신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首露王神話다. 그 내용부터 보자.

-
- 8) 舊左面 松堂 본풀이, <金寧 榑榑기堂 본풀이>, <中文 본향당본풀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9) 『三國遺事』 卷一, 第四 脫解王 條.
 - 10) 玄容駿, 「古代韓國民族의 海洋世界」, 『文化人類學』 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 11) 三品影英, 「增補日鮮神話傳說の研究」(동경: 平凡社, 1972), p.394.

後漢 世祖 光武帝 建武 18年 3月 禊浴之日에 龜旨峯上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므로 사람들 200~300인이 모여 龜旨歌를 부르니, 하늘에서 붉은 줄에 묶인 金合子가 내려왔는데, 그 속에 黃金卵 6개가 들어 있었다. 그 알 속에서 여섯 童子가 탄생했는데, 그 중 한 童子가 首露로서 鴈洛國을 건국하여 임금 이 되었다. 首露王은 배필이 없으므로 九千 등이 매우 걱정하여 “신 등이 둔 처녀 중에 絶妙한 자를 궁중에 뽑아들여 배필을 삼으소서”하고 권하였으나, 왕은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니 나의 배필로 后가 되는 것도 또한 하늘의 명령이라,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라” 거절하고, 留天干에게 명하여 輕舟와 駿馬를 가지고 望山島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 神鬼干에게 명하여 乘舫에 나아가 있게 했다. 이때, 홀연히 서남쪽 해상에서 붉은 빛의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오는 배가 있었다. 이에 留天干과 神鬼干이 王에게 연락하고 맞이하여 보니, 阿踰陀國 공주 許黃玉이 錦繡綾羅, 衣裳疋段, 金銀珠玉, 瓊玖服玩器 등을 가지고 왔었다.

왕은 하늘이 배필로 보낸 것임을 알고 許黃玉을 맞이하여 王后로 삼았다.¹²⁾

이 神話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하늘에서 강림한 首露王의 건국 이야기요, 둘째는 首露王이 阿踰陀國에서 표착해 온 許黃玉을 王后로 삼은 이야기다.

첫째의 首露王이 강림 이야기는 卵生이라는 모티프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 천지왕본풀이나 檀君神話의 강림형식과 근본적으로 같다. 곧, 천지왕본풀이에서 하늘의 천지왕이 地上의 총맹부인에게 내려오는 것이나, 檀君神話에서 桓因의 허가를 받고 桓雄이 太伯山 神檀樹 밑에 내려오는 것이나 근본 思惟가 같은 것이다. 따라서 首露王의 강림 이야기는 하늘에서 地上의 龜旨峯으로의 강림임으로, 우주론적으로 <天>과 <地>(龜旨峯)라는 對偶的 범주를 설정해 놓은 것이 되며, 그것은 垂直的 공간 개념이다. 그러니까 垂直的 雙分的 世界構造의 표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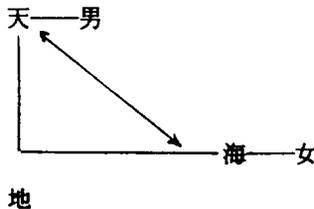
12) 「三國遺事」 卷二, 鴈洛國記에서 요약.

韓國神話에서 본 世界構造

둘째의 許黃玉을 왕후로 맞이한 이야기는 三姓神話의 세 처녀를 맞아 分娶한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같은 취지의 것이다. 阿踰陀國은 神話學的으로 볼 때 三姓神話의 碧浪國과 같이 아득히 먼 해상에 있는 신비롭고 풍요한 상상의 나라다. 그러니까, 許王后가 올 때, 마치 三姓神話의 세 처녀가 오곡의 씨·송아지·망아지 등 농경사회의 필수 귀중품을 가져오듯, 金繡綾羅·衣裳疋段·金銀珠玉 등 국가의 귀중품을 가져 온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女>가 풍요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許黃玉을 왕후로 맞이한 이야기에는 鴈洛國은 <地>, 阿踰陀國은 바다 건너 저쪽 상상의 나라이니 <海>라는 범주가 된다. 곧 <地>, <海>라는 對偶的 범주 설정이 되니, 이는 水平的 雙分的 世界構造의 표상이 된다.

그런데, 이 신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 <男·女>라는 인문개념을 설정하면서 <男>(首露王)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여 <天>의 범주에, <女>(許黃玉)는 바다 건너에서 왔다하여 <海>의 범주에 상관시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 <天·地(山)·海> 3개의 범주가 <그림 5>와 같이 3각형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5>

여기에서 <男>은 <天>에, <女>는 <海>에 각각 상관시키면서 이 양자를 매개시키는 구실은 <地>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天>이라는 수직적 공간과 <海>라는 수평적 공간이 <地>라는 지점을 통하여 연계되는 이 三分的 世界構造觀의 형성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가? 이는 <天-地>의 수직적 雙分觀과 <地-海>의 수평적 雙分觀의 복합에서 <天-地-海>라는 三分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라 본다. 이런데서 複合

的 三分構造라 이름 붙인 것이다.

V. 結 語

이상, 한국의 신화에 표출되어 있는 世界構造의 기본유형을 3개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다. 垂直的 雙分構造, 水平的 雙分構造, 複合的 三分構造가 그것이다. 이들 構造觀은 한국민족의 고대적 세계관의 일환으로서 기본적 思惟方式이기도 하다. 그 유형들의 분포는 대개, 垂直的 雙分構造觀은 전국적 분포이나 檀君神話 등 주로 북부지방의 신화에 순수하게 나타나 북방으로 이어지고, 水平的 雙分構造觀은 제주도와 남부 해안지역의 신화에 농후하여 남방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 두 세계관의 복합된 三分構造觀은 鵲洛國 등 남부지역에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는 한국 문화의 형성이 남·북방 양계 문화의 복합이라는 가설의 근거도 되는 것이다.